

국어 형용사의 의미 특성에 관하여

정 인 수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등급적 형용사의 의미 양상 |
| 2. 형용사의 등급성과 척도 | 3.1 상대적 관계 |
| 2.1 형용사의 등급성 | 3.2 절대적 관계 |
| 2.2 등급적 형용사의 척도 | 4. 마무리 |

I. 머리말

의미론 (semantics)은 의미단위의 범주에 따라 어휘의미론 (lexical-semantics), 문장의미론 (sentential-semantics), 담화의미론 (diocourse semantics)으로 구분된다.¹⁾ 이 가운데서 어휘의미론은 낱말의 무리인 어휘를 대상으로 그 의미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추상적이고 심리적이기도 한 어휘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체계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²⁾ 그렇지만 어휘의 의미구조에 대한 체계적 기술은 의미론의 중심과제로 형식의미론 (formal semantics)이나 통사의미론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어휘 사이의 의미관계를 밝히는 한 작업이 되는 형용사의 의미 특성에 관한 연구는 이런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국어 형용사에 대한 연구는 동의어, 반의어, 정도어, 감각어 등을 다루면

1) G.D. Prideaux, (1985 : 159~195)에서는 '의미론의 세 유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lexical semantics : words, morphemes, core meaning, feature, fields, connotation, denotation, prototypes, 둘째, sentential semantics : propositions, predicates, arguments, semantic role, discourse factors, speech act functions, inference, presuppositions, 셋째, discourse semantics : scrips, schemata, story grammar, cohesion devices. (임지룡 : 1989 : 3에서 재인용)

2) 임지룡, 국어 대립어의 의미 상관체계 (서울 : 형설출판사, 1989), p.3.

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형용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고는 본격적인 형용사 연구의 시도가 되겠다.

형용사에 대한 어휘의미론적 연구는 동의관계, 반의관계, 유·무표관계 등 여러 면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등급성 (gradability)이란 의미자질 (semantic feature)과 원구문 (positive sentence)과 비교구문 (comparative sentence)사이의 함의관계를 중심으로 국어 형용사에 대한 의미적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형용사의 등급성과 척도

2.1 형용사의 등급성

등급성 (gradability)은 일종의 의미자질 (semantic feature)이다.³⁾ 어떤 단어가 등급적 (gradable)인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 단어는 등급성을 가지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등급적이라 함은 순차적인 등급 (grade)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반면에 비등급적이라 함은 순차적 등급을 나타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⁴⁾ 그러므로 비등급적이라 함은 혹이나 백이나고 하는 양자택일의 절대적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예로는 '있다', '없다', '살다', '죽다' 등을 들 수 있다.

등급적이라고 하는 의미적 특성은 형용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부사, 동사, 명사 등에도 해당될 수 있다. 형용사의 경우는 피수식어의 의미를 등급화해 주는 정도부사의 수식에 의해서 등급화될 수 있으며,⁵⁾ 이러한 등급화는 비교구문에서 더 분명해 진다.⁶⁾

- (1) ㄱ. (더, 덜) 길다.
 ㄴ. (가장, 매우, 아주……) 길다.
- (2) ㄱ. (더, 덜) 붉다.

3) Rusieki, Adjectives and comparison in English (Longman, 1986), p.3.

4) 安井稔 의 2, 形容詞 (東京: 研究社, 1976), p.117 참조.

5) 정철주, 현대국어의 정도부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 1982), p.5.

6) Lyons, John, Semantics I. (Cambridge, 1977), p.271.

- ㄴ. (가장, 매우, 아주……) 붉다.
 (3) ㄱ. (더, 덜) 젖다.
 ㄴ. (가장, 매우, 아주……) 젖다.
 (4) ㄱ. A는 B보다 (더, 덜) 길다.
 ㄴ. A는 B보다 (더, 덜) 붉다.
 ㄷ. A는 B보다 (더, 덜) 젖었다.

위의 (1), (2) 그리고 (3)에서 '길다', '붉다', '젖다'와 같은 형용사들은 정도부사인 '더', '덜', '가장', '매우', '아주' 등에 의해서 수식을 받았을 때 어휘적으로 성립될 뿐만 아니라, 이들은 (4)의 비교구문에서도 성립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형용사들은 그 자체에서 등급(grade)이 매겨 질 수 있다고 하겠다.

정철주(1982)에 의하면 정도를 나타내는 서술어는 상태동사인 형용사로서 이들은 고유적으로 [+ 정도성]을 가지는 어휘들이라 해석되며 이러한 [+ 정도성]을 가지는 단어를 정도어라 하고 있다.⁷⁾ 그러나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형용사들이 등급적인 것은 아니다.

- (5) ㄱ(?) (더, 덜) 유일하다.
 ㄴ(?) (가장, 매우, 아주……) 유일하다.
 (6) ㄱ(?) (더, 덜) 영원하다.
 ㄴ(?) (가장, 매우, 아주……) 영원하다.
 (7) ㄱ(?) A는 B보다 (더, 덜) 유일하다.
 ㄴ(?) B는 B보다 (더, 덜) 영원하다.

위에 (5)와 (6)에서 '유일하다', '영원하다'들이 정도부사인 '더', '덜', '가장', '매우', '아주' 등의 수식을 받게 될 때, (1), (2) 그리고 (3)과 달리 어색한 표현이 된다. 또한 이들의 비교구문인 (7)도 (5)와 (6)과 마찬가지로 어색하다. 이것은 그 자체에 등급(grade)이 매겨 질 수 없는 어휘에 피수식어의 의미를 등급화하여 주는 정도부사로 수식했기 때문으로 여겨 진다. 그

7) 정철주(1982). 전계서, p.5.

러므로 이와 같은 형용사들은 그 자체에 등급이 매겨 질 수 없다고 하겠다.

이처럼 형용사들은 그 자체에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것과 등급을 매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전자를 등급적 형용사(gradable adjective)라 하고 후자를 비등급적 형용사(non-gradable adjective)라 하겠다. 국어의 경우에 대부분의 형용사들은 등급적이며, 비등급적 형용사는 그 수가 많지 않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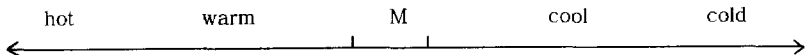
2.2 등급적 형용사의 척도

척도(scale)는 언어학에서 원초적 개념(primitive concept)의 하나인데, 형용사의 의미구조에서 등급성(gradability)은 관련된 차원(dimension)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 척도의 실체를 내포한다.⁸⁾ 예를 들면 ‘크다’와 ‘작다’는 ‘크기’의 척도로, ‘넓다’와 ‘좁다’는 ‘넓이’의 척도로, ‘길다’와 ‘짧다’는 ‘길이’의 척도로 불려워진다.

척도에 관한 연구는 Horn(1972), Cruse(1976, 1986), Lehrer(1982, 1985), Rusieki(1986)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척도에 관한 논의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데, Lehrer(1985)에서는 한 쌍의 형용사 뿐만 아니라 세 개 또는 네 개의 형용사들이 하나의 척도를 정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⁹⁾ 반면에 Rusieki(1986)는 하나의 형용사 또는 한 쌍의 형용사에 의해서 척도가 정의된다는 입장으로 전자를 단항 - 척도(unary-scale)라 하였고, 후자를 이항 - 척도(binary-scale)라 하였다.¹⁰⁾ Cruse(1986)는 ‘cool’, ‘warm’, ‘cold’, ‘hot’의 경우 분리된 두 개의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¹¹⁾ 국어의 경우 천시권(1980)과 정인수(1985)에서는 Lehrer(1982)와 같은 견해

8) Rusieki(1986), 전개서, p.4.

9) Lehrer(1985)는 ‘hot’, ‘warm’, ‘cool’, ‘cold’를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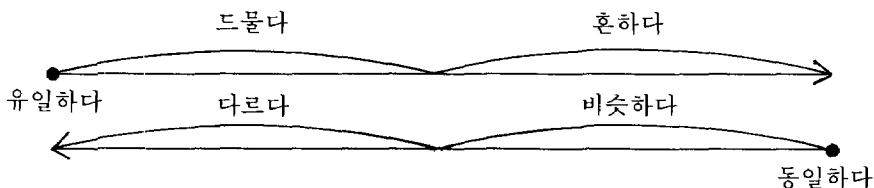


10) Rusieki, (1986 : 5)는 이항척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두 형용사가 적어도 등급적(gradable)이고 같은 어휘영역(lexical field)으로부터 나오고 적어도 반상호적(semi-reciprocal)이라야 한다고 하였다.

11) Cruse(1986)는 ‘hot’, ‘warm’, ‘cool’, ‘cold’를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분리된 척도를 다루고 있다.

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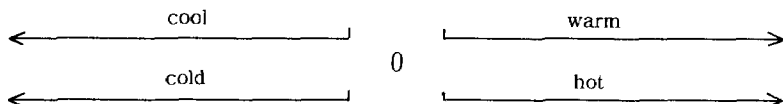
등급적 형용사는 그것이 의미를 등급화하여 주는 정도부사로 수식될 수 있다. 의미적으로 볼 때, 이것은 등급적 형용사가 그것이 속하는 척도상에서 폭을 가지는 증거라고 여겨진다. 반면에 비등급적 형용사는 정도부사로 수식될 수 없으므로 척도상에서 폭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은 척도상에 점으로써 그 위치를 나타낼 뿐이다. '드물다, 흔하다, 유일하다'와 '다르다, 비슷하다, 동일하다'를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일반적으로 비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의 의미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 차원에 있어서 무엇과 무엇이 어떤 위치로 차지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형용사가 비교구문에 사용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그 형용사의 형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의미와 대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¹²⁾ 따라서 폭이 아닌 점을 가진 척도 뿐만 아니라 척도상에 두고 볼 수 있어도 점으로써 그 위치를 나타내는 것은 비교구문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¹³⁾

(8) ㄱ. (= (7) ㄱ) (?) A는 B보다 (더, 덜) 유일하다.



12) Bolinger (1967), Adjective comparison : a semantic scale, J.E.L.I. pp.2~10.

13) 安井稔(1976), 전개서, pp.257~263 참조.

ㄴ. (?) A는 B보다 (더, 덜) 동일하다.

(8)의 ㄱ과 ㄴ이 어색한 표현이 되는 것은 '유일하다'와 '동일하다'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척도상에서 폭이 아닌 점으로써 그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3. 등급적 형용사의 의미 양상

대부분의 등급적 형용사는 비교구문(comparative sentence)과 원구문(positive sentence) 사이의 함의관계에 의하여 특성이 나타난다.¹⁴⁾ 이것은 한 형용사의 비교형이 두 특별한 대상을 비교하는 데 사용될 때, 그 비교형은 두 대상이 관련된 척도 위에서 그런 대상들의 위치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교형은 원형(positive form)과 척도 위에서 같은 값의 집합을 가리킬 필요가 없다.¹⁵⁾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휘 자체의 의미와 원구문과 비교구문 사이의 함의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 관계(relative relation)와 절대적 관계(absolute relation)로 나누어 등급적 형용사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3.1 상대적 관계

하나의 형용사를 포함하는 비교구문은 네 개의 다른 유형의 원구문이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다음의 (9)와 같이 비교구문이 어떤 원구문도 함의하지 않을 때, 상대적 관계(relative relation)라 하겠다.

- (9) ㄱ. NP_i는 NP_j보다 더 A ⇨ ㄱ1. NP_i는 A
⇨ ㄱ2. NP_i는 ~A
⇨ ㄱ3. NP_j는 A
⇨ ㄱ4. NP_j는 ~A

14) Rusieki(1986), 전계서,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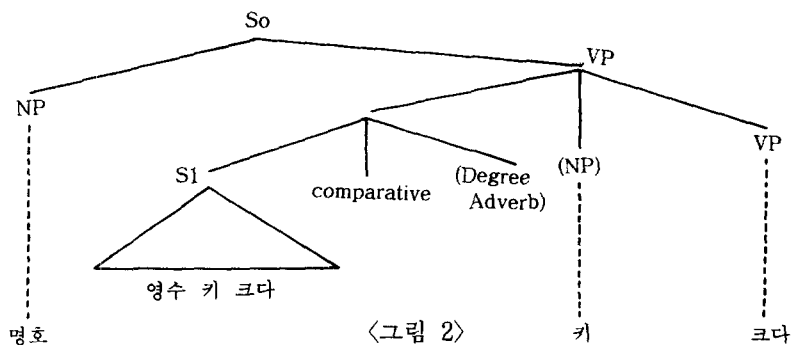
15) Rusieki(1986), 전계서, p.8.

(9)에서 NP_i와 NP_j는 명사구이고, A는 형용사이며, ~A는 A의 부정(negation)이다. 그리고 '≠'는 논리적 함의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나타내고, '⇒'는 성립되는 경우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9)에서 ㄱ₁, ㄱ₂, ㄱ₃ 그리고 ㄱ₄를 함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NP_i와 NP_j가 'A'이거나 '~A'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9)의 함의관계를 만족하는 형용사들은 완전히 값-중립적(value-neutral)일 것이다.

- (10) ㄱ. 이 연필은 길다.
- ㄴ. 저 연필은 길다.
- ㄷ. 이 연필은 저 연필보다 더 길다.
- (11) ㄱ. 명호는 키가 크다.
- ㄴ. 명호는 영수보다 키가 더 크다.

김선희 (1972)는 변형생성문법의 틀 안에서 (11)의 '크다'와 같은 국어 형용사에 대한 비교구문의 기저구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¹⁶⁾



김선희 (1972)에서는 (11) ㄴ이 '명호는 키가 크다'와 '영수는 키가 크다'에

16) 김선희, 한국어 비교구문의 구문론적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72. p.7 참조.

서 유도되는 것으로 보았다.¹⁷⁾ 이는 원형의 '크다'와 비교형의 '크다'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11)ㄴ이 (11)ㄱ을 함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선희(1988)에서는 (10)의 ㄷ이 ㄱ을 함의하는데, 그 이유는 (10) ㄱ의 '길다'는 본래적인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⁸⁾

그런데 (10)의 ㄱ과 ㄷ의 두 표현에서 '길다'의 의미가 동일하거나 본래적인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 같다. ㄱ의 '길다'는 그 대상이 속하는 범주 속의 기준(norm) 또는 평균값(average value)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길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¹⁹⁾ 물론 이러한 기준이나 평균값은 문화가 다름으로 해서 변할 수도 있고, 같은 사회 안에서 비교집단이 다름으로 해서 변할 수도 있다.²⁰⁾ 즉, 그 대상과 평가 기준에 따라 변한다.²¹⁾ 반면에 (10) ㄷ의 '길다'는 ㄱ의 '길다'와 달리 '저 연필'이 기준이 되어 '이 연필'이 '저 연필'보다 '길다'라는 의미이다.

- (12) ㄱ. 이 연필은 저 연필보다 더 긴데, 이 연필의 길이는 7cm이다.
 ㄴ. 이 연필은 저 연필보다 더 긴데, 이 연필의 길이는 5cm이다.
 ㄷ. 이 연필은 저 연필보다 더 긴데, 이 연필의 길이는 3cm이다.

만일 (10)의 ㄱ인 '이 연필이 길다'에서 기준값(길지도 않은 상태)을 5cm로 잡았을 때, (12)의 ㄱ을 제외한 ㄴ과 ㄷ은 정상적인 표현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ㄴ과 ㄷ이 정상적인 표현이다.

- (13) ㄱ.(?) 이 연필은 길지만, 이 연필은 길지 않다.(짧다)
 ㄴ. 이 연필은 저 연필보다 더 길지만, 이 연필은 길지 않다.(짧다)
 ㄷ. 이 연필은 저 연필보다 더 길지만, 두 연필은 모두 길지 않다.(짧다)

17) 김선희(1972), 전제서, p.44 참조.

18) 김선희, 공간어와 시간적 의미(목원어문학 7집 : 1988), p.30.

19) 임지룡, 정도그림씨의 의미대립 특성(언어 제12권 1호 : 1987), p.157.

20) Lyons(1977), 전제서, p.273.

21) 염선모, 국어 의미론(형설출판사 : 1987), p.5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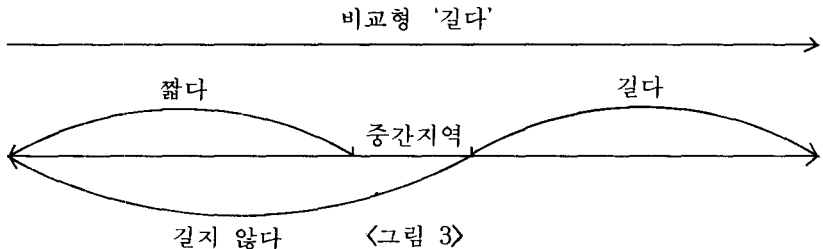
ㄹ. 이 연필은 저 연필보다 더 길지만, 그 연필보다 더 짧다.

또한 (12)에서 문제의 연필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13)의 ㄱ에서는 모순이 되어 어색해지나 ㄴ과 ㄷ 그리고 ㄹ에서는 정상적인 표현이 된다. 그리고 (13)의 ㄱ, ㄴ, ㄷ에서 '길지 않다' 대신에 '길다'와 쌍이 되어 하나의 척도를 정의하는 '짧다'를 넣어도 동일한 결과를 가진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임지룡(1989)에서는 비교구문에 사용된 '길다'는 길이에 대한 상대적인 방향만 나타내므로 대립이 중화되어 무표항이 된다고 하였다.²²⁾

이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형용사 '길다'에서는 원형의 '길다'와 비교형의 '길다'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 같다. 즉, 원형 '길다'는 유표적이지만 비교형 '길다'는 무표적이다. 따라서 비교형 '길다'는 '이 연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으며, 또한 '저 연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10)의 ㄷ은 ㄱ도 ㄴ도 함의하지 않게 된다. 원형 '길다'와 비교형 '길다' 사이를 함의관계로 나타내면 다음의 (14)와 같고, 이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14) ㄱ. 이 연필은 저 연필보다 더 길다.

- # ㄱ1. 이 연필을 길다.
- # ㄱ2. 이 연필은 길지 않다.
- # ㄱ3. 저 연필은 길다.
- # ㄱ4. 저 연필은 길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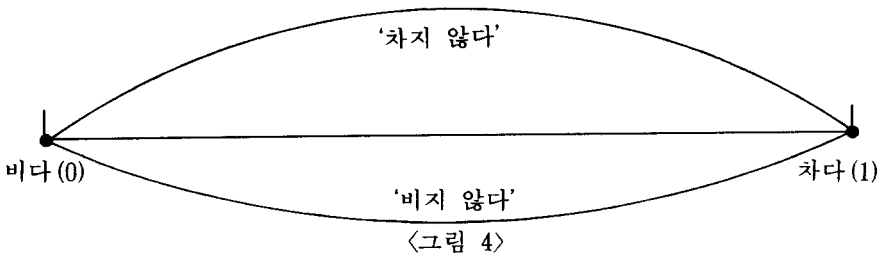


22) 임지룡(1989), 전제서, p.106 참조.

위의 (14)는 (9)의 함의관계를 만족하게 되므로 '길다'는 상대적 관계에 속하는 형용사라 할 수 있다. 상대적 관계에 속하는 '길다'와 동일한 의미 특성을 가지는 형용사로는 '짧다', '크다', '작다', '무겁다', '가볍다', '가깝다', '멀다', '깊다', '얕다', '많다', '적다' 등이 있다.

- (15) ㄱ. 이 병은 물이 찼다.
 ㄴ. 이 병은 물이 차지 않았다.
 ㄷ. 저 병은 물이 비었다.
 ㄹ. 저 병은 물이 비지 않았다.

(15) ㄱ의 '차다'는 (10) ㄱ의 '길다'와 달리 '평균적으로 더 차다'는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차다'는 어떤 용기(병)에 자질(물)이 완전하게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5) ㄷ의 '비다'는 어떤 용기에 자질이 완전하게 없음을 의미한다. '차지 않다'는 '비다'가 아니고 '비지 않다'는 '차다'가 될 수 없다. 즉, '차다'와 '비다' 사이에는 '차지도 비지도 않은 상태'인 중간 지역(mid-interval)이 있다. '차다'는 더 들어 갈 수 없는 가득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1의 값을 주고, '비다'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0(zero)의 값을 주어 이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4>와 같이 된다.



- (16) ㄱ. 이 병은 저 병보다 물이 더 찼다.
 ㄴ. (?) 두 병은 물이 찼지만, 이 병은 저 병보다 물이 더 찼다.
 ㄷ. 이 병은 저 병보다 물이 더 비었다.
 ㄹ. (?) 두 병은 물이 비었지만, 이 병은 저 병보다 물이 더 비었다.

(16) ㄱ에서 비교형 '차다'는 자질(물)이 완전하게 있는 두 용기(병)를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두 용기가 '차다'일 경우에는 그것들이 같은 값, 즉 1을 가지므로 '같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비다'는 자질(물)이 완전히 없는 두 용기를 비교할 수 없다. 두 용기가 '비다'일 때는 그것들이 같은 값, 즉 0(zero)을 가지므로 '같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6)의 ㄴ과 ㄹ은 정상적인 표현이 될 수 없다.

또한 비교형 '차다'는 자질(물)이 어느 정도 더 있는나를 비교하므로 두 용기(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빌 수 없고, 용기 가운데 하나는 찰 수 없다. 반면에 비교형 '비다'는 두 용기 가운데 어느 하나도 빌 수 없고, 두 용기 가운데 하나는 빌 수 있다. 따라서 원형 '차다'는 값이 1이지만 비교형 '차다'는 값이 $0 < \text{비교형 '차다'} \leq 1$ 이 되며, 원형 '비다'는 값이 0(zero)이지만 비교형 '비다'는 값이 $0 \leq \text{비교형 '비다'} < 1$ 이 된다. 그러므로 '이 병이 저 병보다 물이 더 차다'라고 했을 때 '이 병은' 물이 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마찬가지로 '저 병은' 물이 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차다'는 다음과 같은 함의관계를 가지게 된다.

(17) ㄱ. 이 병은 저 병보다 물이 더 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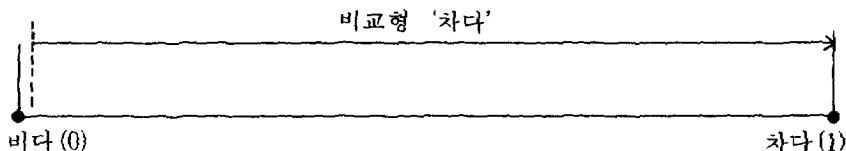
ㄱ1. 이 병은 물이 차다.

ㄱ2. 이 병은 물이 차지 않았다.

ㄱ3. 저 병은 물이 차다.

ㄱ4. 저 병은 물이 차지 않았다.

(17)의 함의관계는 (9)의 함의관계를 만족하게 되어 '차다'는 '길다'와 같이 상대적 관계에 속하는 형용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차다'와 '길다'사이에는 의미적 차이가 있다. 그러면 다음의 <그림 5>를 통해서 살펴 보겠다.



<그림 5>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형 ‘차다’는 ‘길다’와 달리 척도의 전 영역에서 작용하지 못하고 ‘비다’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만 작용한다. 이것은 ‘차다’와 ‘길다’가 척도상에서 가지는 값이 서로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3.2 절대적 관계

비교구문과 원구문 사이의 함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본고에서는 절대적 관계 (absolute relation)라 하겠다.

- (18) ㄱ. NP_i는 NP_j보다 더A ⇒ ㄱ1. NP_i는 A
 ⇨ ㄱ2. NP_i는 ~A
 ⇒ ㄱ3. NP_j는 A
 ⇨ ㄱ4. NP_j는 ~A

(18)에서 ㄱ이 ㄱ1과 ㄱ3을 함의한다는 것은 NP_i와 NP_j가 A라야 하며, ㄱ이 ㄱ2와 ㄱ4를 함의하지 않는 것은 NP_i와 NP_j가 ~A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 (19) ㄱ. 이 꽃은 붉다.
 ㄴ. 저 꽃은 붉다.
 ㄷ. 이 꽃은 저 꽃보다 더 붉다.

(16)의 ㄱ과 ㄴ에서 ‘붉다’는 (10) ㄱ의 ‘길다’와 달리 ‘평균적으로 붉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16) ㄱ의 ‘붉다’는 특별한 ‘꽃’에 대해서 말해 질 수 있으나, 모든 꽃에 적용될 수 없으며 ‘평균적으로 붉다’보다 큰 값이나 작은 값을 가르키는 어휘가 없기 때문이다. 즉, ‘색’이라는 하의관계에 놓이는 ‘푸르다’, ‘노랗다’, ‘검다’ 등이 아무리 ‘더 푸르다’, ‘더 노랗다’, ‘더 검다’ 하더라도 ‘붉다’는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붉다’, ‘푸르다’, ‘노랗다’ 등이 함께 하나의 척도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서로 다른 척도를 정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붉다’, ‘푸르다’, ‘노랗다’ 등은 동일한 척도상에서 그들의 위치를 나타낼 수 없다.

‘마르다’와 ‘젖다’를 들 수 있다. ‘마르다’는 ‘습기’라는 자질이 없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마르다=0(zero)습기’의 등식이 성립된다. 그리고 (22)의 α 이 정상적인 표현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마르다’와 ‘젖다’ 사이에는 중간지역(nid-interval)이 없다.

(22) α 에서 비교형 ‘젖다’는 자질(습기)가 어느 정도 더 있느냐 또는 없느냐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젖다’는 척도상에서 0(zero)의 값을 가질 수 없다. 즉, 비교형 ‘젖다’의 값은 ‘0<젖다’가 된다. 따라서 (22)의 α 은 γ 과 λ 을 함의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은 함의관계를 성립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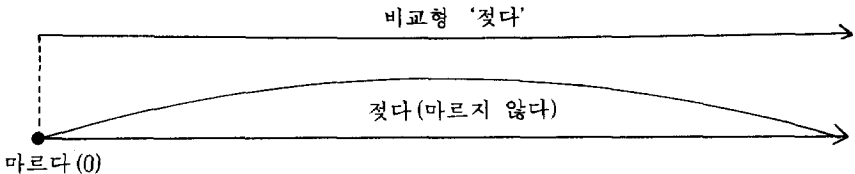
(23) γ . 이 수건은 저 수건보다 더 젖었다.

⇒ γ 1. 이 수건은 젖었다.

⇏ γ 2. 이 수건은 젖지 않았다.

⇒ γ 3. 저 수건은 젖었다.

⇏ γ 4. 저 수건은 젖지 않았다.



<그림 7>

(23)의 함의관계는 (18)의 함의관계를 만족하므로 ‘젖다’는 ‘붉다’와 같이 절대적 관계에 속하는 형용사이다. 그러나 ‘붉다’가 단항척도를 정의하는데 비해서 ‘젖다’는 ‘마르다’와 쌍이 되어 이항척도를 정의한다는 것과 ‘붉다’가 척도상의 모든 영역에 작용하지만 ‘젖다’는 ‘마르다(0)’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작용한다는 것이 서로 다르다. ‘젖다’와 같은 의미적 특성이 있는 형용사로는 ‘아프다’, ‘더럽다’, ‘그르다’ 등이 있다.

4. 마 무 리

등급성(gradability)과 함의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형용사의 의미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형용사들은 그 자체에 등급을 매길 수 있는 등급적 형용사와 등급을 매길 수 없는 비등급적 형용사로 나눌 수 있다.
2. 등급적 형용사는 척도상에서 폭을 가질 수 있으나 비등급적 형용사는 척도상에 점으로써 그 위치를 나타낼 뿐이다. 따라서 비등급적 형용사는 비교구문의 척도가 될 수 없다.
3. 원구문(positive sentence)과 비교구문 사이의 함의관계에 의해서 상대적 관계와 절대적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상대적 관계는 다시 척도상의 모든 영역에서 비교형이 작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길다' 계통과 '차다'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 관계도 상대적 관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붉다' 계통과 '짙다'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4. '짙다'와 쌍을 이루어 하나의 척도(scale)를 정의하는 '마르다' 계통의 형용사들은 본고에서 논의하지 못하였는데, 이들 형용사들에 대해서는 후고로 미룬다.

참 고 문 헌

- 김선희(1972), 한국어 비교구문의 구문론적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_____(1988), 공간어와 시간적 의미, 목원어문학 7집.
 염선모(1987), 국어 의미론, 형설출판사.
 임지룡(1987), 정도 그림씨의 의미대립 특성, 언어 제12권 1호.
 _____(1989), 국어 대립어의 의미 상관체계, 형설출판사.
 정인수(1985), 국어 반의어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정철주(1982), 현대 국어의 정도부사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천시권(1980), 온도 어휘의 상관체계, 국어교육연구 12, 국어교육연구회.
 安井稔 외2(1976), 形容詞, 東京: 研究社.
 Bolinger, D.L.(1976), Adjectives Comparison: a semantic scale, J.E.L.I.

- Cruse, D.A. (1976), Three Classes of Antonymy in English, *Lingua* 38.
- _____ (1986), *Lexical Semantics*,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 Horn, L.R. (1976), On the Semantic Properties of Logical Operators in English,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Lehrer, A (1985), Markedness and Antonymy, *Journal of Linguistics* 21.
- Lehrer, A. and Lehrer, K. (1982), Antonymy, *Linguistics and Philosophy* 5.
- Lyons, John (1977), *Semantics I*,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sieki, Jan (1986), *Adjectives and Comparison in English*, Longman.
- Prideaux, G.D. (1985), *Psycholinguistics : The Experimental study of Language*, New York & London : The California Press.